

기억 내러티브의 이중성과 역사화의 탈정치성*

정이(鄭毅)** 전성곤(全成坤)***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내러티브' 사이 |
| II. 내러티브와 '역사/역사'와 '내러티브' | IV. 내적 체험의 공유와 사전(事前) 부흥 |
| III. '동일본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 | V. 나오며 |

| 논문요약 |

본 논고에서는 동일본대지진 경험자인 당사자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재해의 경험이나 기억이 어떤 의미에서 역사화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역사와 내러티브의 관련성에 대해 다루어본다. 특히 역사학의 흐름에서 빠질 수 없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방법론의 등장이 갖는 의미를 검토했다. 또한 내러티브(narrative)가 '현재적 의미에서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역사성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사실로서 존재했던 '동일본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 내러티브'가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논리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제3장에서는 내러티브 속에서 나타나는 기억의 재현이 갖는 한계점과 가능성을 고찰했다. 즉, 기억의 재현이라는 것이 사물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자아를 발견하는 것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내러티브 텍스트가 발생되어 화자와 청취자의 내부에서 공동으로 발견되는 '상호적 자아 내부의 타자성'이라는 제3의 인식이 창출될 가능성을 고찰했다.

▪ 주제어: 동일본대지진, 역사화, 기억, 내러티브, 민화

* 이 논문은 2015년 중국사회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15ASS004).
** 제1저자: 흑허학원대학(黑河學院大學) 특별초빙교수 및 북화대학교(北華大學校) 동아연구원 교수.
*** 교신저자: 북화대학교 동아연구원 교수.

I. 들어가며

본 논고는 동일본(東日本), 즉 ‘동북지방=태평양연안’에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경험과 기억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기억의 역사화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당사자의 경험이 내러티브와 연결되는 프로세스 그리고 그 내러티브를 듣는 청취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자아가 갖는 의미를 상호 주관성 문제로 다루어 재해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의 내러티브가 재해를 당하기 이전에 이에 대응하는 사전(事前) 준비의 논리로 사전 부흥과 연결해 보고자 한다.

태평양연안의 쓰나미, 원전 피해, 지진으로 기억되는 ‘동일본대지진’은 대지진 이후 많은 ‘동일본대지진 내러티브(narrative)’를 양산해냈다. 그 과정에서 사실로서의 ‘동일본대지진’과 ‘내러티브로 회자되는 동일본대지진’ 사이에는 역설적으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어 사실(史實)’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문제는 그 사실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본대지진’과 ‘내러티브화된 동일본대지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넘어 무엇을 역사화할 것인지에 있다고 본다.

동일본대지진은 무엇보다도 ‘지역 개념’과 ‘사물(事物) 이미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다시 말해서 재해 경험이나 기억들이 기술되면서 지역 개념과 사물에 대한 개념들이 재편되고 재(再)기억화되었다. 특히 일본이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일궈낸 동북지방의 마을이나 도시, 바다, 그리고 원전(原電)이라는 ‘사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의문점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는 역사화 과정에서 ‘기억의 가변/비가변성’이 갖는 문제점을 폭로시켰다. 특히 사물들은 근대 일본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로 동일본대지진 이전에는 ‘일상’ 그 자체였다. 그렇지만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그 근대화의 논리 위에서 만들어진 일상이 재구성되었고, 기억화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통해 ‘재현’해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으로 근대화 논리로 사회나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일상’이 기억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내러티브화된 동일본대지진’이었다. 일반적으로 역사 혹은 역사적 기록은 실증적 자료나 증언을 토대로 객관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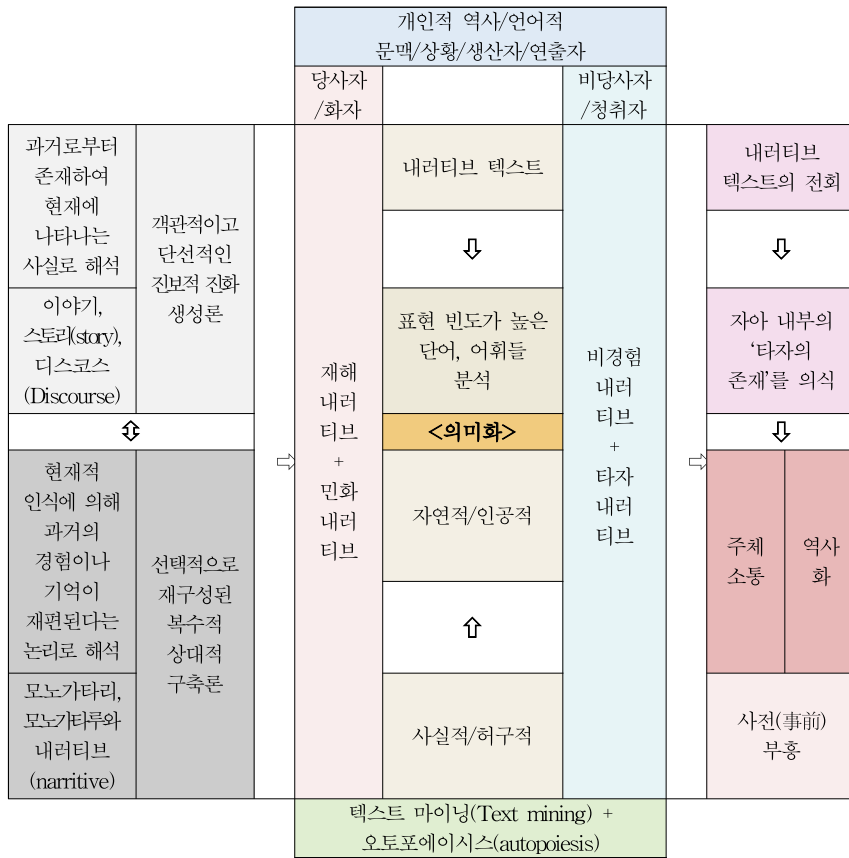
사실을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 기록은 공식문서나 문헌이 오히려 한 개인의 기억이나 직접적인 체험이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여겨지거나 극단적으로는 개인의 기억만을 중시하는 태도로서 수정주의 역사관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역사와 개인의 기억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으로, 개인의 기억을 청취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역사적 기억’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프로세스 속에 존재하는 기억이 갖는 ‘정치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본 논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민화 내러티브와 재해 기억이다. 민화(民話) 이야기꾼이 동원되어 재해 기억이 재현될 때 나타나는 ‘물질세계의 무지각’에 갇히게 되는 정치성의 문제이다. 원래 민화란 민중적이고, 비정치적인 것, 권력에 저항적인 것으로 사회적 차별 구조를 ‘자각’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그 민화적 수법은 하나의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패턴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정형화’된 시스템적 재현이 갖는 논리의 해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또한 재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비당사자가 ‘화자’의 내러티브 속에서 청취자의 ‘인식론적 맥락=사회적 맥락’을 통해 다시 취사선택되어(井庭崇·成瀬美悠子 2008, 3)¹⁾ ‘번역/해석’되면서 재해 경험을 재현시킨다. 달리 말하자면 재해 경험/기억 당사자인 발화자와 그것을 청취하고 읽는 비당사자 사이에는 상호 간에 ‘선택적=파편적’ 재현이라는 ‘상대주의적 내재 인식=상호 주관성의 문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화자의 주체는 정치성이 동반되고 동시에 청취자 또한 청취자 정치성이 불식할 수 없는 ‘상호 주체의 정치성’ 극복이라는 자아 재편의 논리이기도 하다. 동일본대지진과 그 기억/경험의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새로운 주체는 ‘의식된 또는 의식하지 못한’ 주체들의 ‘인식’을 통한 제3의 ‘주체화=역사화’라는 신편러다임 구축 가능성을 갖는다. 그것이 사회에 구조적으로 공유화되어 가는 것으로 집단적 기억으로서 변주될 수 있다.

1) 특히 본 논고에서 집필자는 선택 개념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이바 다카시와 나루세 미유코(井庭崇·成瀬美悠子 2008)의 학회 발표 논고에서 시사를 받았다. 완전한 논고가 아니라 학회발표 원고인데,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선택 개념은 사회시스템 이론에 있어서 정식화(定式化)와 마찬가지로 생물(주체)의 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나 복잡성의 축감(縮減)이라는 사태를 가리킨다. 선택 개념은 말하자면 주체가 결여된 개념’이라고 기술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역사화와 동시에 국가 내부의 질서 속으로 수렴되어
 가시화되어 간다. 바로 이처럼 국가적 거대 이야기 속으로 재편될 가능성
 그 자체를 깬다는 것은 기억의 사물성(事物性)을 자각하는 것이며, 그것이
 야말로 ‘내러티브’의 재현이 갖는 의의일 것이다. 그러한 자각된 ‘주체성’
 을 청취자가 이해하고, 청취자 또한 비(非)경험 속에 경험 부분을 자신의
 인식 속에서 재해석했다는 것을 통해 비주체적 자아, 즉 주체 내부의 타
 자성을 자각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주체가 발견되고 구축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구도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내러티브의 논리 전개를 통해 본 부흥론과 역사화



II. 내러티브와 ‘역사’/역사와 ‘내러티브’

역사화란 “실증의 증거, 즉 자료나 증언 혹은 관찰에 근거하여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사실들을 축적해 가는 작업”(友澤悠季 2015, 29)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척도는 ‘관찰’에 근거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증거나 자료의 실증성이 어떻게 사실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물음을 소거시킨 채 시간상의 진화에 의한 축적을 중시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역사화와 연관하여 이 관찰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한 분명히 관찰도 역사화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다. 즉 관찰이라는 행위가 역사화를 만드는 데 있어 담당하는 역할이 중요하며, 관찰이라는 행위에 내장된 방법론적 내실(內實)을 고민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찰이 갖는 기법적 차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거대적인 흐름의 문맥에서 보면 ‘역사’라는 것도 그것이 역사화되는 하나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때 근대적 방법론으로 중시된 것이 실증주의와 역사주의라는 입장이었고, 그러한 문맥에서 역사화가 유래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 또한 역사를 다루는 하나의 방법론이었다(安川晴基 2008, 69). 특히 텍스트 세계를 실증주의와 연결시킨 기법이었는데, 그것도 시대적 산물의 하나로서 역사를 기술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일상이나 개인의 기억이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이 텍스트 역사가 기술하지 못한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측면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이 새로운 증언이 기준에 공식화되고 국가 차원에서 역사화된 ‘거대 역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가 현재는 상호 융합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포스트모던(postmodern)의 역사가들은 사건(出來事)을 직접 체험한 개인의 증언이나 지금까지 억압되었던 약자나 마이너리티의 목소리, 즉 달리 표현하자면 ‘작은 담론’으로서의 기억을 역사에 반영하려는 것을 중시했다. 그러나 ‘거대 담론’의 역사를 제쳐내고 개인의 ‘기억(記憶)’만

을 중시하는 태도는, 역사라는 것이 수많은 과거의 ‘이야기(物語)’ 중 하나의 버전(version)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역사 서술에 있어서 사실과 허구의 구별이 없다는 극단적인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여 현재 ‘기억’과 ‘역사’가 다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두 개념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小田桃子 2014, 47).

즉, 거대 담론의 역사 논리 속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약자나 마이너리티의 목소리를 역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극단적인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기 위해 기억과 역사의 ‘접근’이 시도되는 것은 새로운 역사 쓰기의 시도와 맞물려 상보적 기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서 개인의 기억이라는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역사화의 매개로 활용하면서, 과거를 현재에서 재구성하는 프로세스 속에서 기억이나 경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첫째가, 기억이나 경험을 단순하게 하나의 증거나 자료로 관찰하여 기존의 거대 텍스트로만 기록되는 역사를 벗어나 일률적인 역사화에 대한 차이를 갖는 의미로서의 역사화 작업으로 심화시켜 가는 방법이다. 이것 또한 역사화 작업에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또 다른 역사화 방식일 것이다. 두 번째는 과거를 재현해내는 작업이 어떤 증거나 사실에서 실제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찰 시좌에 의해 과거가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후자 쪽인데, 개인의 기억이나 경험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관찰에 의해 사실이나 진실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즉 기억이나 경험은 선택되고 사회적 인식에 의해 재편된다는 뜻이다.

특히, 개인의 기억과 경험이 그동안 실증적 자료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화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주된 기억과 경험을 ‘관찰’에 근거하여 전자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방향을 보면, 실증성이나 사실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화와 관찰에 대한 시각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찰자와 당사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기억이나 경험에 대한 사실성이나 진실성에 대

한 것도 결국 관찰자의 사고나 시대정신이 반영되는 것이며, 무의식 속에서나 의식 속에서 ‘해석’되어 버린다는 논리와도 연결된다.

그렇지만 반대로 관찰자와 당사자 사이의 해석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에 대해 동시적 재고가 요구된다. 이때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제시된다. 즉 이야기는 디스코스(discourse), 즉 담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디스코스란 “어떠한 방식으로든 특정한 방식을 통해 정리되어 사건의 특정 버전을 낳는 의미, 메타포, 표상, 이미지, 스토리, 진술”(Vivien Burr 1997, 74)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어의 ‘이야기하다’라는 의미인 ‘가타리(語り)’는 ‘내러티브(narrative)’의 번역어라는 입장이 존재하고, 이를 ‘스토리’나 ‘디스코스’와 구분한다. 특히 스토리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을 내용 줄거리로 엮어내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야마다요코 2000, 147) 진행 과정을 중시한 생성학(生成學)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스토리를 하나의 생성학이라는 입장으로 본다는 입장이 중요한데, 그것은 다른 단어적 논리들과도 구별된다. 즉 “내러티브는 동사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행위의 수행적 개념이고 스토리는 시작과 끝을 가진 완결된 구조적 체계를 가리키는 명사적 개념”(야마다요코 2000, 152)이라고 하듯이, 스토리와 내러티브는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가 가진 의미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생성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스토리나 디스코스는 앞서 언급한 ‘지방사 자료의 역사화’가 의미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여겨진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나 자료로서 존재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기(想起) 방식이 역사적 사실로 등장하는 경우가 존재한다”(野家啓一 1996, 127)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내러티브로 전환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본어에서 ‘이야기’를 ‘가타리(語り)’, ‘가타루(語る)’라고 했는데, 명사적으로 이야기는 ‘모노가타리(物語り)’라고 하거나 ‘모노가타루(物語る)’라 일컫는다. 특히 “일본어의 모노가타리나 모노가타루는 일본 문화에 깊게 뿌리를 내린 흥미로운 일상어이다. 일본어의 모노가타루란 본래 사물(事物), 즉 영(靈), 닛(鬼) 혼(魂), 정신을 형상화, 즉 표상(表象), 재현(represent)하는 행위였다. 또한 가타루는 단순한 일상회화와는 달리 가타루(騙る), 즉

속이는 행위이기도 하며, 개인으로서 페르소나(persona)를 이중화하여 과거 차원을 현재에 환기시키는 연기적(演技的) 행위”(やまだようこ 2000, 153)라고 한다. 모노가타리나 모노가타루는 스토리나 디스크스와 달리 ‘사물의 표상(表象)과 재현 행위’이며, 또한 ‘가타루(語る)는 가타루(騙る), 즉 속이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를 현재에 환기시키는 연기적 행위라고 제시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시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논리에서 후술하는 내러티브와 상통하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현재에 환기시키는 연기적 행위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모노가타리나 모노가타루라는 것은 과거를 현재로 재현시키는 연기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표상’의 의미도 있지만, 비당사자를 ‘속이는 행위’로서의 연기라는 점도 혼효되어 있다는 양면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되는 모노가타리나 모노가타루라는 행위가 영어의 내러티브(narrative)의 번역어로 융합되어 간다. 일본어의 모노가타리나 모노가타루가 특히 “구술(口述)된 것, 이야기된 것, 쓰인 것, 비주얼(visual)적으로 표현된 것 등등 형식을 따지지 않고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근래에는 내러티브 턴(narrative turn), 즉 이야기적 전회(轉回)라고 불리며 커다란 반향을 창조”(保坂裕子 2014, 1)한다고 보며, 내러티브의 의미와 합체된 것이 증명되었다. 내러티브적 턴 혹은 이야기의 전회라는 의미는 내러티브가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이 생성학적인 진행으로서 객관적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식을 통해 과거의 기억이 재편되는 ‘형식’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narrative)란 영어 그대로 내러티브로 표기하는데, 화자(話者)에 의해 이야기된 것=모노가타리(物語)와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를 포함하여 일본어에서는 모노가타리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내러티브는 단순히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자의 감정, 태도, 신념, 해석을 나타내며, 사건이나 경험을 의미를 부여하여 줄거리를 엮어내는 행위로서, 그곳에서 도출되는 의미에 착목하게 된다(保坂裕子 2014, 2).

이처럼 내러티브가 단순히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술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화자의 감정, 태도, 신념, 해석을 나타내며, 사건이나 경험에 의미가 부여되면서 줄거리를 엮어내는 행위로서 그것에서 도출되는 의미에 착목한다는 지적은, 사건이나 경험이 의미화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내러티브라는 행위는 과거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재현시키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이러한 내러티브 논리를 기존의 역사관이나 역사철학에 투명시켜 본다면, 역사 속에는 기억과 경험을 현재적 기억으로 재편한 것인데, 중요한 점은 그 현재적 인식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그 현재적 구성 요소의 중대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역사적 사실은 개개인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문제, 즉 현재 어떠한 문제로서 해석되는가라는 문제로 연결된다(安川晴基 2008, 71-72).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역사화의 논리가 객관적 사실로서 존재했던 기억의 기술인지 아니면 현재적 구축물인지에 대한 양면성인지 고찰하는데 있어 내러티브 분석 방법론은 새로운 이론적 가치로서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준다. 즉 객관적 사실로서 기억을 받아들여 역사적 사실을 믿는 본질론적 입장이든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는 것은 특정 사회의 시점에 의해 과거가 재구성된 것이 역사라고 보는 입장이든, 결국은 사건이나 경험이 내러티브화가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는 의미에서 역사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내러티브와 ‘역사’, 역사와 ‘내러티브’는 공동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Ⅲ. ‘동일본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 내러티브’ 사이

내러티브는 화자나 관찰자 ‘사이’에 의해 재현되는 세계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재해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고유의 내적 세계를 갖는 당사자 개인을 중시한다(佐々原正樹 2014, 88-90). 그래서 직접 재해를 겪지 않은 타인에게 재해 경험을 이야기할 때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거리/차

이의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 레벨에서의 온도차는 물론이거니와 이해의 폭도 다르다. 더군다나 국가 레벨로 올라가면 그 거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적 레벨에서는 부흥(復興) 논리를 통해 피해자와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피해 경험에 다가가려 한다.

개인의 재해 경험과 기억이 국가적 사건으로서 경험이고 기억으로 연결되고, 국가는 재건과 부흥 슬로건을 통해 재해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 물론 그러한 의미에서 개인의 재해 경험과 기억은 국가의 부흥 이론과 맞물리고, 비경험자로서 등장하기도 한다. 즉 재해를 직접적으로 겪은 피해 당사자의 경험과 기억은 재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타인과 부흥이라는 논리로 다가오는 국가가 타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비당사자나 국가가 부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타자로서 ‘외부’에 위치하게 된다. 외부라는 의미는 피해자의 아픔이나 부담을 사회 전체가 어떻게 공유하고 역사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자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지키려 하는 태도를 가리킨다(磯前順一 2015, 120).

이것은 당사자의 경험이나 기억이 내러티브로서 역사에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답을 찾는 데 있어 커다란 의미를 던져준다. 비당사자로서 타자가 외부자로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은 역설적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노가타리나 모노가타루가 가질 수 있는 ‘가타루(騙る)’, 즉 재해 경험자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입장에서 재현하는 경험이나 기억일 수 있다는 상대적 내러티브가 내포하는 위험성의 탈출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러티브가 경험이나 기억을 사실적으로 관찰하는 모노가타리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부자로서 존재하려고 하는 타자로서의 비당사자나 국가와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당사자의 당사자성이 갖는 내러티브의 양면성을 정치성의 문제와 연결시켜 재고할 필요가 있고, 외부자로서 국가가 내러티브를 국가 레벨의 역사로 수렴시켜 갈 정치성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먼저 내러티브에 함의될 수 있는 경험과 기억의 사실성과 속임 혹은 자아 중심적 이야기 전개가 가진 양의성(兩義性)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내러티브만으로는 그것이 사실인지 공상(空想)으로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내러티브 어프로치는 사실인

가 허구인가라는 판단을 일단 제쳐두고 화자(話者)가 내러티브를 통해 어떤 체험의 세계를 거기에서 작동시키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森岡正芳 2013, 9)는 지적처럼 내러티브에는 자신이나 타자에게 ‘경험과 기억을 재현’하면서 전달하려고 하는 ‘세계’가 존재한다. 내러티브가 사실인지 허구인지의 문제를 떠나 당사자 내러티브에 내포된 세계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과 타자의 모노가타리(物語)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함께 현재적 화자의 목적(의도)을 따라가면서 사건이 선택되고 청취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배열하는 텍스트이며, 다른 사건을 배제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텍스트이다. 이것은 두 개의 모노가타리인데, 하나는 화자의 눈을 통해 나타난 하나의 모노가타리에 지나지 않고, 다른 또 하나의 모노가타리 가능성[별개의 가타리(語り)]를 항상 갖고 있어 화자와 청취자에 의해 다시 이야기될 수 있는 텍스트라는 것을 의미한다(佐々原正樹 2014, 90).

사사하라 마사키(佐々原正樹)가 지적하듯이, 당사자의 내러티브 속에는 ‘경험과 기억 속의 사건이 선택되고 배열’이 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 속에는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사건이 선택적으로 배열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즉 화자의 눈에 나타난 내러티브는 동시에 그것과 별개의 내러티브를 가질 수 있고, 청취자가 듣는 귀의 내러티브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는 결국 하나의 텍스트가 되고, 그것은 당사자인 화자와 비당사자인 청취자에 의해 다시 ‘이야기’되는 텍스트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가 단순하게 당사자의 경험이나 기억을 형상화하거나 표상 또는 재현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이 선택되면서 배열되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는 목소리를 통해 감정, 태도, 신념들이 표출되고, 그것을 청취자가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그 사건이나 경험, 기억에 의미가 부여된다고 했는데, 그 내러티브에 함의될 수 있는 자기조직화(seif-organization)와 자기제작(autopoiesis)이라는 의식이다(マトゥラーナ・ヴァレラ 1991, 70-71;

あぼえいじ 2007, 69-70). 내러티브 속에 당사자의 자기산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설정된 구도 속에서도 재생산되도록 혼련되는 의미와 반대로 새로움을 생산하고 산출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함의하고 있다. 내러티브가 공상의 이야기로 산출되기도 하면서 자아의 새로움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현재에 환기시키거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청취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텍스트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 속에서 자아가 의식적으로 형성되는 논리와 그것을 청취하는 비경험자가 그것을 함께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내러티브가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화자와 청취자 사이에 새로운 자아 내러티브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서 새롭게 텍스트가 발생한다는 상호 구축론이 제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개입하는 또 다른 재해 내러티브 텍스트이다.

이러한 텍스트들이 경합하는 과정, 즉 ‘재해 내러티브’는 텍스트로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 속에는 사회적/공공적 시점에 의해 경험이나 기억이 표준화되고, 일률적인 스토리로 제도화되어 가면서 국가적 차원으로 수렴되어 가는 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화의 논리와 연관하여 내러티브를 재고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 내러티브’를 역사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재해 내러티브’가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동일본대지진은 ‘지진’, ‘쓰나미’, ‘원전 문제’를 포함하는 재해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단순하게 자연재해와 인재(人災)가 동반된 ‘복합 재해’였다는 점에서 ‘부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즉 이러한 ‘복합 재해’가 일깨워준 것은 기존 재해 논리와 다른 새로운 세계관으로서 취약성(vulnerability, 脆弱性)이 갖는 ‘근대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이었다. 이것은 동일본대지진이 동북지방이라는 ‘변경’의 문제로서 치부될 것이 아니라, 근대 과학이나 이성으로만 믿었던 개념이나 기계에 대한 문제 전체에 내포된 취약성의 문제를 노출시킨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중화되고 생활양식이 균질화 된 안정된 근대 사회라

고 인지하고 고향이나 국가에 대해 특별한 거리두기가 없었는데, 재해라는 커다란 ‘위기 상황’에서는 일상의 전화(轉化)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재해 경험이나 기억은 일상이나 국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다. 좀 형이상학적인 논리로 들릴 수 있지만,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하고 그 경험과 기억과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일상’, ‘개인’, ‘국가’와의 관계에서 취약성이 드러나게 된다. 특히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거대 담론의 역사로 수렴되어 갈 가능성이 내포되고 그 변형에 대해 무비판적일 수 있는 상황도 생겨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한 당사자의 동일본대지진 내러티브를 살펴보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동일본대지진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 동일본대지진 속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진, 쓰나미, 원전 피해로 인한 경험의 차이와 지역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기억되고, 역사화 되고 있다. 그 가운데 본 논고에서 사례로서 다루는 것은, 2011년 8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된 ‘제7회 미야기(みやぎ) 민화(民話) 모임편’(みやぎ民話の會編 2012, 1-253)에서 이야기된 내러티브 내용이다. 이것은 DVD로 촬영하였는데, 그 기획 의도는 ‘그날의 체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라고 했다(小野和子 2012, 102-106). 이처럼 영상 기록의 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미야기현(宮城縣)의 ‘미야기(みやぎ) 민화(民話) 모임’의 멤버 중에 동일본대지진을 체험한 당사자들이 화자로서, 즉 동일본대지진 내러티브 기억이 있었다(福田雄 2012, 57-63).

먼저 내러티브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 내러티브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시간상 흐름의 구조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재해 경험 내용에서 도출된 내용들

도입 내레이 이션	주된 기술 내용				
	사 례	지진/쓰나미 발생 당시	피난소의 생활	안정을 찾은 후의 기억	현재의 생활 내레이션 (삶의 보람)
2011년 3월 11일, 정든 고향, 쓰나미 아무 건물도 없음, 슬픔, 상실감 망연 자실 기억, 미래, 전달	1	주택, 쓰나미, 아내, 유리아게(閑上)중학교, 공장, 자동차, 제1차 피난소, 운동장, 지인(知人)	비상구, 모포, 체육관, 소학교, 장남, 며느리, 아내 사망	반야심경(般若心 經) 낭독, 부쓰단(仏壇)	가설주택에서 독거생활, 가설주택 주민과 대화의 시간
	2	3.11, 손자 졸업식, 달력, 종자씨 놓기, 비닐하우스, 점심, 지진, 전화, 강아지, 텔레비전, 기도, 가구, 울음, 정원, 구급차, 이웃집, 자동차, 천국, 죽음	채목, 휴식처, 쓰레기더미, 자아를 찾음, 노아의 방주, 소각장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를 얻음, 동료들의 죽음	잡지에 체험 기재, 사실, 공정, 납득, 민화 가타리 (民話語り)
	3	건강교실, 2시 46분 지진, 집, 정원, 주차장, 강아지, 남편 경차 트럭	소학교, 지금 생각하면 몸이 움츠러들, 남편과 재회, 쌀 창고, 주먹밥, 수도, 전기, 휴대폰	자위대, 불런티어 식사 배급, 쓰레기더미 정리, 친구부부 사망, 일기, 친척의 죽음, 피로감, 칠레 지진 기억, 생명, 부흥, 희생	집 밖의 경치가 옛날과 다름, 아픈 기억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역할, 민화 가타리
	4	야쿠르트 배달, 보험센터, 2시 46분 지진, 의자 밑, 오토바이, 해안도로, 쓰나미, 민생위원, 후색쓰나미, 높은 지대로 이동, 집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봄	전기, 수도, 가스, 양말, 지원물자, 손자 핸드폰, 라디오, 소학교(노인홈), 화장실, 체육관	자위대, 젊은이들, 간호사, 보육사, 지원활동, 물자도착, 외국인, 기즈나(絆)	민생위원 활동, 경험을 이야기함, 마을을 돌봄
	5	집에 손님이 왔음, 지진, 목조 건물, 가구, 테이블, 정원, 방재 무선 울림, 쓰나미 예보, 피난 방송, 자동차, 도보	식사 건빵, 자위대, 도로 정비, 밭, 채목, 가설 주택, 불런티어, 쓰레기더미 정리	해안가에서 1키로미터 떨어진 곳이 집, 해수욕장이 유명, 어부, 어선	재해를 계기로 민화가타리(民話 語り)를 재기, 하이쿠(俳句), 문화 축제 참가
	6	중학교 졸업식 참가, 귀가, 도시락, 텔레비전, 지진, 피난, 쓰나미 경보, 피난소(절)	이웃주민의 안부, 핸드폰, 라디오, 소방서 비상식량, 아들과 연락, 모포	집을 다시 찾아감, 칠레 지진 때 발생한 쓰나미와 비교해 봄, 쓰나미가 콘크리트 제방 넘음, 파괴된 건물들의 쓰레기더미, 도시로 이사	매일 산보, 민요를 부름, 민화 가타리

전체적인 내러티브의 특징을 보면, 먼저 공통 내레이션으로서 ‘그날 우리들은 말을 잃었다. 2011년 3월 11일. 정든 고향에 쓰나미가 덮쳐왔다’라는 메인 내레이션을 시작으로 피해자 당사자들의 이야기, 즉 내러티브를 순서대로 그려냈다. 그 영상은 피해 당사자들은 각각 자신이 경험한 기억인 현장에 다시 찾아가 ‘지금은 아무 건물도 없다. 그것이 가장 슬프다’고 그 지역 방언을 섞어가며 이야기한다. 그리고 메인 내레이션은 ‘깊은 슬픔과 마음을 자극하는 상실감, 망연자실한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3.11의 기억을 미래를 위해 이야기해 두고 싶어졌다’고 이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동일본대지진 체험 당사자들이 각각의 이야기를 전개한다(岩本由輝 2012, 97-101; 野村敬子 2012, 71-80; 庄司アイ 2013, 49-55; 小野和子 2013, 66-73; 島津信子 2013, 115-118).

구체적으로 미야기현(宮城縣) 나토리시(名取市)의 <사례 1>, 미야기현(宮城縣) 와타리군(亶理郡) 야마모토초(山元町)의 <사례 2>, 미야기현(宮城縣) 모토요시군(本吉郡) 미나미산리쿠(南三陸町)의 <사례 3>, 동일 지역인 미나미산리쿠의 <사례 4>, 후쿠시마현(福島縣) 소마군(相馬郡) 신치마치(新地町)의 <사례 5>, 사부사와지마(寒風澤島)의 <사례 6>의 내러티브인데, 그 내용들은 각각 다른 상황이고 경험의 내용도 다르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전개된다. ① 지진 발생 당시의 상황 → ② 피난소 경험 → ③ 다시 원래의 집을 찾아 갔을 때의 기억 → ④ 현재 삶의 보람의 순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당사자들 내러티브 속에는 ‘가족 구성원, 집, 주변 건물, 도로, 자동차, 바다, 피난소, 가설주택, 희망’ 등이 나타난다. 그 내러티브의 구성에 나타는 단어나 표현 방식, 어휘에 공통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해 내러티브에 참가한 재해 당사자들은 민화 가타리베(語り部)들이었는데, 그 민화 가타리베는 민화를 전문적으로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일종의 이야기 전문가’인 것이다. 민화 가타리베에 의한 동일본대지진의 경험과 기억은 전문가적 이야기로서 나타난 ‘새로운 텍스트’였고, 민화나 전설처럼 기억화/역사화를 시도한 것이었다(松本孝三 2015, 217-242). 물론 민화 내러티브와 연결된 재해 경험과 기억을 역사로서 남기기 위해 이

이야기, 즉 내러티브화를 한다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그 중대함을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가족, 친척, 동료, 이웃, 집, 논, 밭, 상점 등등을 잃어 삶에 대한 절망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역사로 남기는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에 참가한 민화의 가타리쿠치(語)口)가 그것을 듣는 청취자들의 관심을 갖게 한다. 내러티브라는 것도 결국 민화와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의 재료나 줄거리뿐만 아니라 가타리쿠치에 의해 지탱되는 것인데, 그 내러티브 자체가 하나의 문체가 되는 것이었다.

가타리쿠치라는 것은 문장으로 말한다면 문체인데, 여기서 문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표현기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복잡한 내용을 가리킨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노파가 민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 몸짓, 얼굴 모습, 눈의 모습, 이야기의 진행 방법, 이야기하다가 간격을 두는 방법 등등 이러한 것들 전체가 가타리쿠치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大島廣志 2007, 141-143).

이 가타리쿠치의 문체라는 것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화자의 목소리, 몸짓, 얼굴 모습 등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그 실제적 이야기보다도 가타리쿠치의 ‘문체’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었다. 이것은 앞선 언급했듯이 내러티브가 ‘사후(事後)-재현’이라는 점에서 내러티브 의식(意識)이라는 측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내러티브 재현 방식과 내러티브의 가타리쿠치에는 쓰나미에 의해 휩쓸려가 폐허가 된 현재의 현장을 방문하여, 그 기억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재현되어 하나의 범주적 구조를 띠게 된다(いとうたけひこ 2015, 107).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목적과 의도가 설정되면서, 역설적으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전달 내용이 설정되고 선택되고 있었다. 이것은 친(親)작위성과 비(非)선택성이 양립적으로 나타나는 내러티브로, 그것 또한 다른 재해내러티브의 텍스트로서 체현된다는 것이다. 이 내러티브는 3.11의 교훈이나 미래에 대해 남겨둘 이야기로 구성되고, 그것으로 통일되어 간다.

그렇지만 여기서 따질 것은, 민화가 가진 아이덴티티의 문제이다. 민화는 원래 “자기 자신을 둘러싼 문화적 상황을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 생활에서 불합리함이나 모순을 간파하지 못하고, 특

히 마스크 등에 의한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아, 상호 간의 부조(扶助)·연대감(連帶感)의 희박화가 생겨나고 있다. 상대 입장에 서서라든가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연대한다는 견해나 사고방식을 길러내기 위해 일상적 생활 배후에 감춰져 있는 진실에 눈을 돌리고, 인권존중의 정신에서 보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차별에 대해서도 자각하고, 그 본질을 간파하는 힘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민화를 통해 민중의 시점을 통해, 주인공의 삶의 방식에 감동하고 공감하는 것”(大橋忠雄 1985, 13)이라고 적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민중에 의해 민중에게 이야기되는 민화는, 신분제도라는 억압에 대한 차별을 간파하고, 불합리성을 인지하여 일상적 생활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인 자신을 둘러싼 문화적 상황이 자아 속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자각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그를 통해 상대 입장에 서서라든가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연대한다는 견해나 사고방식을 길러내기 위해 일상적 생활 배후에 감춰져 있는 진실에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계기로서 민화의 역할이 존재했다.

그러한 민화의 근원적 역할에 기초하면서, 재해 경험과 기억을 내러티브(narrator)가 전체 흐름을 이끌어주면서 당사자의 이야기가 합체되는 방식인데, 그 형식과 내용에는 통일성과 규칙성을 갖게 된다. 내용 자체 그것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지진 피해인가, 쓰나미 피해인가 아니면 사망자가 누구인가 등등 차이가 있지만, 그 구조는 동일성을 띠며, 어떤 흐름의 형식적 통일성을 갖고 있다. 민화를 구성하는 플롯의 정형성이 어찌면 재해 경험의 기억과 중첩되면서 교훈적 이야기,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의도에 맞추어져서 전개되는 ‘완결적 스토리’를 갖게 된다.

이것은 민화라는 방법론적 구조를 빌려오면서 형성하는 텍스트일 수 있는데, 이것에는 양의성이 존재한다. 첫째는 훈련에 의해 내러티브가 패턴화되어 개인의 기억 재현이 규칙성을 띠게 되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규범화하지 않기 위해 감정이나 자신의 해석이 가미되는 또 다른 비규범적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러티브 속에는 정형성을 빌려오는 제도적 틀과 중첩되는 부분과 그것을 벗어나서 새롭게 내러티브에 창조적으로 사실과 허구의 가미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화가 가진 특성으로서, 제도 속에서 억압에 대한 차별을 간파하고, 불합리성을 인지하여 일상적 생활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인 자신을 둘러싼 문화적 상황이 자아 속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자각적인 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방법론 속에는 제도적 규범 속에 간혀 버리는 내러티브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재해의 경험과 기억이 ‘민화=민중적 시각, 민중적 입장’에서 보는 제도의 모순성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민화의 형식을 빌려와 민화적 내러티브의 정형 속에 간혀 있는 ‘기계적 서술’이나 ‘분류형 내러티브’는 ‘자신을 둘러싼 문화 상황에 대해 무비판적인 수용’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내러티브 속에는 사실과 진실만이 수집되고 배열된 기억이라고 보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시간상의 배열에 차이점이 생기고 당사자의 개인적 상황 자체에 의해 이야기가 생략되거나 추가되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화자/당사자의 선택적 기억 배열이 갖는 사실과 진실의 양면성인 것이다. 이것은 다시 청취자에게 또 다른 해석을 낳게 하는 텍스트로 남게 되고, 그것은 다시 부흥 사업의 일환으로 반영되어 간다.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부흥 문제에 대한 재해 기록으로 선택되어 간다. 그렇지만, <사례 3>의 내러티브 속에는 동일본대지진 이전에 일상에서 보던 남편과 재해 경험 후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된 남편이 전혀 다른 남편으로 인지되었다는 것을, 과거 시간에 살던 일상 삶에 대해 새로운 자아를 인지하는 ‘자아의 재탄생’도 존재했다. 이것은 어떤 범주화의 형태도 아니고 훈육을 통한 내러티브의 정형성도 없었지만, 재해 경험과 그 기억을 되짚고, 그것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자아가 새롭게 탄생하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특히 재해 경험과 기억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기억이라는 것이 현재의 자신의 생각을 중첩시키면서 미래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형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과 기억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면서 현재적 경험과 기억으로 변용되고, 다시 미래의 경험과 기억으로 재창출되고 있었다.

IV. 내적 체험의 공유와 사전(事前) 부흥

이처럼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사건과 그 사건으로서의 동일본대지진 경험이나 기억은 객관적 사실로서 나열되고 존재함과 동시에 현재의 자아 입장에 의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독자화되거나 클로즈업되어 선택적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기계적 틀로 생성되고 나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찰 의도에 따라 재구성되고 재현되는 것이었다. 즉 현재 사회의 사회적/문화적/국가적 내부의 상황에서 내면화했던 ‘인식’들이 반영되어 과거의 기억 속에 투영되면서, 과편들의 선택에 의해 상기되고 강조되면서 내러티브화가 되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내러티브 행위를 통해 주체가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새롭게 자아 속에서 발견해내는 재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내러티브를 청취하면서 비당사자와의 사이에 자아 탐구라는 새로운 세계를 공유하는 것이다. 즉 내러티브에 내포된 경험과 기억이 사실성을 동반하면서 자아 중심의 취사선택 내용이 전개되고, 사실인지 공상인지의 경계를 왕복운동하면서 만들어진 다. 결국 화자(話者)가 재해 경험이나 기억의 세계를 자아 내부에서 작동시키는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내러티브는 현재적 의도에 의한 재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비당사자인 타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세계’를 체현해낸다. 바로 그 세계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러티브가 사실인지 허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 세계성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 세계성이란 앞서 사사하라 마사키가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화자가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경험이나 기억이 선택되고, 그것을 청취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배열되는 텍스트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듣는 청취자에 의해 그 텍스트가 재텍스트화되면서 공유되고 혹은 공유되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그것은 다시 역으로 청취자에게도 내러티브와 동일한 ‘세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청취자 또한 선택적이고 청취자의 인식 내부에서 해석되고 재편되고 재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세계를 공유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은 내러티브와 마찬가지로 청취자의 관찰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 청취자 또한 내러티브

속에 그려지는 과거가 언어나 감정,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청취자의 관찰이 갖는 새로운 텍스트 창출이라는 것이다. 모리오카 마사요시(森岡正芳)는 관찰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관찰력은 현장(現場)에 있으면서 그 장소의 생기(生氣)의 다면성을 읽어내는 힘이다. 관찰에는 자신의 심신(心身) 감정이나 장소의 분위기, 그 흐름의 변화 등이 중요한 계기를 얻는다(森岡正芳, 2013, 10).

모리오카가 제시한 관찰력이란 현장력이 가진 힘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인데, 여기서 강조된 것은 현장의 생기와 관찰자가 갖게 되는 청취자, 즉 관찰자의 심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분위기 그리고 그 흐름의 변화가 청취 내용의 이해에 중요한 계기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민속학의 거두인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가 『민간전승론(民間伝承論)』과 『향토생활 연구법(郷土生活の研究法)』이라는 저서에서 다루어졌다. 즉 관찰자는, 첫째로 생활의 외형, 눈의 채집, 여행자의 채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활 해설로 귀와 눈의 채집, 기우자(寄寓者)의 채집이며, 셋째는 생활의식, 마음의 채집, 동향인의 채집이라고 제시했다(川田牧人 2005, 89).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현장을 귀와 눈으로 보고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대화’와 논리의 구조적 분석을 입체화한다는 구상이었던 것이다.

이 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이와모토 미치야(岩本通弥)는 관찰자의 인식 내부에 ‘새로운 인식의 체계화’가 일어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개념을 제시한 것이 내성(反省)이었는데, 이 내성은 동정이기도 하면서 ‘내관(内觀, introspection)’이라고 했다. 즉 관찰 대상과의 자기 동일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추체험(追体験) 혹은 감정이입이라고 보았다. 바로 야나기타(柳田)가 사용한 사적(私的)인 내적 체험(內的體驗)을, 그것이 잉태된 역사성이나 사회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체험자가 강렬하게 내성하는 과정이 개재(介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대상화(對象化)하는 계기가 존재하고, 객관성은 그때 비로소 성립의 근거를 갖는다고 했다. 그것은 순차 의식적인 내면적 공간에서 그것을 더듬어 가는 과정으로, 무의식적으로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추리이기도 했다(岩本通弥 1990, 113-135).

물론 이것은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제시된 이론이기도 하지만, 재해 내러티브를 관찰하는 논리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재해 경험자의 내러티브를 청취하면서 관찰자도 그것과 동일화를 이루게 되는 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것을 추인 체험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감정이입이라는 내적 체험을 통해 ‘새로운 인식의 체계’를 구축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상화하는 계기를 찾는다. 내러티브 속에 감춰진 작위성과 사실성 양면성을 인지하고, 그 내적 재편성은 개인의 사적 인식론에 의해 작위될 수 있다는 재편 텍스트로 청취하면서, 반대로 청취자는 그것이 역설적으로 관찰자의 내성, 즉 재해 경험이나 기억을 추인 체험하는 내적 체험을 통해 관찰자 자신을 대상화하고 자각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일상에 매몰된 생활자의 갖가지 사태를 부각시키는 논리”(森岡正芳 2013, 10)로 연결되어, 내레이터(narrator)도 청취자도 그것을 생활에서 재발견된 자아를 찾는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경험과 기억의 내러티브 재현 과정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 사이에 동일한 방식으로 공유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기억을 생각해내는 주체가 아니라, 기억에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억은 객체가 되는 듯한 상기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계기가 되는 사물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가. 사물에 관한 기술이 다수 존재한다. 건축물에 대한 생각, 지식, 사진, 산, 바다 등등이 그것이다. 그들 사물은 기억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이름으로 나열되고, 즉 사물의 상호 연관이 등장한다. 그 속에서 기억에 남는 사물로부터 과거의 사건을 자의적으로 끄집어내어 시계열(時系列)에 따라 정리하고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역사를 상징하는 사물을 통해 기억에 대한 어프로치가 시도된다. 다시 말해서 사물의 집합은 역사와 기억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모티브”(小田桃子 2014, 54)라고 지적했다. 즉 인간의 기억은 사물에 관한 기술이 다수 존재한다. 건축물에 대한 생각, 지식, 사진, 산, 바다 등등이 그것이다. 그들 사물은 기억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이름으로 나열되고, 즉 사물과의 상호 연관이 등장, 그 속에서 기억에 남는 사물로부터 과거의 사건을 자의적으로 꺼내어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고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기억의 주체가 아니라, 모노에 의해 기억이 기억화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노에 의해 기억이 재현되는 것은 “사물은 그것 자체가 가진 유용성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 별개의 문맥에 놓이게 된다. 즉 시계열에 따라 모노를 배열하고 그것에 배치된 모노가 보여주는 시간의 흐름을 국가 역사로서 공개한다. 그것에 의해 역사는 사회에 공유되고, 사회적 기억으로 변환되고, 우리들의 시간은 질서화되고 배치된다. 그 배치된 모노는 근대 국민국가의 질서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고, 국민은 그것 속에서 나열된 ‘기호 유지물’로서 모노/사물이 재현해주는 국가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역사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공유하게 된다”(小田 桃子 2014, 55-57)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모노에 의해 기억이 재편된다는 논리이고, 모노에 의해 기억이 지배를 받는다는 논리인 것이다. 사물들에 의해 지배되는 근대 국가의 모순과, 역으로 사물들에 의해 인간의 인식을 지배해 온 국가 시스템을 폭로해 주는 것이었다. 결국 기억이 모노에 의해 재생되고, 단적으로 가설주택에 이주되면서 부여된 새로운 이름들은 수용소에 이송된 사람들 모임처럼 한곳에 집합되고 정렬되면서 자아 주체를 빼앗기고 국가 시스템 속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제도로서 역사화하려는 국민의 부흥 기획이며, 그것이 거대한 역사로 기록되면서 개인의 재해 경험과 슬픔, 비참함의 기억은 은폐되는 것이다.

내러티브가 갖는 재현 방식에서 그러한 국가의 모노들에 지배를 받는 것에 갇히게 되면, 국가가 쳐놓은 그물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주체적인 모노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국가가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지배하는 정치적 그물망이고, 빈틈없이 개인 개인의 내면까지 걸리게 만든다는 것이다(宇野邦一 1986, 39). 그러한 정치성이나 제도성이 내러티브와 기억에 함의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과정을 내러티브에 담아내고, 그 세계를 역으로 재현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러티브가 새로운 역사 텍스트를 창출해내는 패러다임의 산출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청취자의 내성 속에서 ‘새로운 자아의 발견’ 논리로 그 세계를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즉 “누군가에게 접촉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응시되고 있다는 것, 누

군가로부터 말을 건네받고 있다는 것, 이것들은 틀림없이 현실적인 경험 속에서 다시 말하면 ‘타자(他者)의 타자(他者)’로서 자신을 체험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존재를 부여하는 듯한 차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나의 개성성은 여기에서 스스로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다”(鷺田清一 1999, 129-130)라는 논리로 연결될 것이다. 이것은 비당사자인 청취자가 자아 내부에 감춰진 타자로서의 자아를 새롭게 인지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그것은 바로 비경험자의 기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해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일상을 ‘몰지각적’으로 사회나 문화에 갇힌 세계를 재구성해 내고, 비주체적 자아에 대한 ‘각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V. 나오며

본 논고에서는 내러티브와 역사, 역사와 내러티브의 관련성을 통해 새로운 ‘자아 재현’의 탈정치성을 검토하고, 그를 통해 자아와 타자와의 경계 넘기의 세계성과 자아 고수적(固守的) 간힘의 문제를 부각시켜 보았다. 특히 재해의 경험과 기억을 역사화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아와 타자와의 경계 넘기의 세계성 인식을 연결시킬까를 고찰해 보았다. 특히 재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 ‘내러티브’가 가진 의미를 재고하고, 목소리의 역사화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최근에는 역사화 과정에서 새로운 실증적 자료로 등장한 개인의 증언이나 경험 그리고 기억이라는 개인 내러티브가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내러티브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의미적으로는 일본어의 ‘모노가타루’가 가진 의미와 중첩되었다. 즉 모노가타루와 내러티브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이 재현되는 것인데, 그 ‘서사’는 현재적 인식에 의해 재편된 과거라는 뜻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재해의 경험이나 기억 ‘구조’는 객관적 사실로서 과거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식에 내포된 ‘상황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 의해 재현되고 창출되는 것임을 읽어냈다. 그러한 재해 경험과 기억을 당사자에게서 듣는 청중도 청중이 가진 현재적 인식에 의

해 재해 경험과 기억이 ‘수용되고 해석되어’ 새로운 제3의 맥락의 텍스트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와 비당사자 사이의 ‘거리’는 동일본대진과 동일본대지진 내러티브 사이의 거리를 만들었고, 그것이 지방적 역사 시설로 연대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적 사료들의 네트워크화도 중요하지만, 내러티브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개인의 재해 경험과 기억을 특수성을 넘어 새로운 국가 역사로서 보편화하기 위한 ‘신 패러다임이 역사 기록’이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재해 내러티브에서는 ‘민화 가타리베’의 내러티브가 새롭게 나타났다. 물론 민화 개념의 재정의적 측면은 아니지만, 민화가 원래 ‘민중에 의한 민중의 목소리’로서 ‘당대 사회에 내장된 진리나 사실, 봉건성이나 차별’, 즉 권력이나 사회적 부조리를 일깨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능했다. 그렇지만 재해 기억 내러티브 속에는 ‘민화 구조를 빌려’오면서, 구조에 끼워 맞춰진 패턴적 나열이라는 정형화 시스템에 구속된다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물론 그와 반대로 패턴이나 구조를 빌리지 않고서는 경험의 진리를 체현할 수 없다는 이중성을 갖지만, 그 구조 내부에서 발견되는 주체 의식은 ‘민화의 역사성’을 살린 비국가적 비정치성으로서의 내러티브여야만 했다. 다시 말해서, 경험과 기억은 체험의 사실들이 재현되는데, 재해 경험의 재현 프로세스에 나타난 시계열적(時系列)적 구성에 보이는 구성물, 즉 도로·산·가옥 등의 ‘사물’이 ‘인식 속에서 이미지화되어 나타나는 것’, 즉 의식 속에서 그것을 꺼내어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과의 관련성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인의 주체적 의식이나 개인의 신체가 사물이나 언어, 이동, 관련성 등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물의 연쇄적 체현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기억과 경험의 재현은 주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물들에게’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지배당한 것, 즉 기억의 객체 상실이라는 문제가 드러난다. 이야기와 사물이 ‘사물로서의 성질’과 동떨어져 다른 문맥을 형성하면서 ‘기억/경험’이 배치되고 재편된다는 것이다. 기억이라는 이름의 인식론적 권력에 의해 구축된 것임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를 자각적으로 재현하는 내러티브는, 그것을 듣는 청취자에게도 공유된다. 바로 새로운 역사화와 생활 자각사(自覺史)로 연결되는 부분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재해를 만나기 이전에

‘자아 속에서 주체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사전(事前) 부흥’이며, 그것이 사상으로서 역사화 되어 전승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 Vivien Burr (1997). 『社会的構築主義への招待』. 田中 一彦訳. 東京: 川島書店.
- あぼえいじ (2007). “オートボイエーシスとは何か.” 『ロジスティックビジネス』. 7月号. ライノス・パブリケーションズ, pp. 68-71.
- いとうたけひこ (2015). “テキストマイニングによる被災体験学への混合研究法アプローチ.” 『東西南北和光大学総合文化研究所年報』. 東京: 和光大学総合文化研究所, pp. 104-116.
- マトウラーナ H. R. and F. J. ヴアレラ (1991). 『オートボイエーシスー 生命システムとは何か』. 河本英夫訳. 東京: 国文社.
- みやぎ民話の会編 (2012). 『みやぎ民話の会叢書』. 第13集. 宮城県: みやぎ民話の会.
- やまだようこ (2000). “人生を物語ることの意味.” 『教育心理学年報』. 第39集, pp. 146-161.
- 磯前順一 (2015). 『死者のざわめき: 被災地信仰論』. 東京: 河出書房新社.
- 大橋忠雄 (1985). 『民話の中の被差別部落像』. 東京: 明石書店.
- 大島広志 (2007). 『民話—伝承の現実』. 東京: 三弥井書店.
- 島津信子 (2013). “失われたふるさとを民話の力で.” 『震災と民話』. 東京: 三弥井書店, pp. 115-118.
- 保坂裕子 (2014). “ナラティヴ研究の可能性を探るための一考察.” 『兵庫県立大学環境人間学部研究報告』. 第16号, pp. 1-10.
- 福田雄 (2012). “災禍を語ること/語られることはいかにして可能か: 「第七回みやぎ民話の学校」における「3.11」津波の語りから.” 『KG社会学批評』. 創刊号, pp. 57-63.
- 森岡正芳 (2013). “現場から理論をどう立ち上げるか: 臨床ナラティヴアプローチを手かかりに.” 『神戸大学大学院人間発達環境学研究科研究紀要』. 6巻. 3号, pp. 7-12.
- 小野和子 (2012). “3.11を語り継ぐために.” 『震災と語り』. 東京: 三弥井書店, pp. 102-106.
- _____ (2013). “映像と声と.” 『震災と民話』. 東京: 三弥井書店, pp. 66-73.
- 小田桃子 (2014). “W.G.ゼーバルト『アウステルリッツ』におけるコレクション: <歴史>と<記憶>のはざままで.” 『DA』. 第10集, pp. 46-58.
- 松本孝三 (2015). “災害を語る民間説話の世界.” 『伝承の創造力』. 東京: 三弥井書店, pp. 217-242.
- 安川晴基 (2008). “「記憶」と「歴史」—集合的記憶論における一つのトポス—.” 『芸文研究』. Vol. 94, pp. 68-85.
- 岩本由輝 (2012). “3.11大津波そこまでやって来た.” 『震災と語り』. 東京: 三弥井書店, pp. 97-101.
- 岩本通弥 (1990). “柳田国男の「方法」について—綜観・内省・了解—.”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27集, pp. 113-135.

- 野家啓一 (1996). 『物語の哲学—柳田国男と歴史の発見』. 東京: 岩波書店.
- 野村敬子 (2012). “今語ること.” 『震災と語り』. 東京: 三弥井書店, pp. 71-80.
- 宇野邦一 (1986). “1986年の政治ゲーム、言語ゲーム、あるいは死のメニュー.” 『現代思想』. Vol. 14-8, pp. 38-49.
- 友沢悠季 (2015). “「なかったこと」にさせない思いをつなぐ営みとしての歴史叙述.” 『歴史学研究』. No. 935, pp. 29-33.
- 庄司アイ (2013). “宮城県亘理郡山元町の津波体験.” 『震災と民話』. 東京: 三弥井書店, pp. 49-55.
- 井庭崇·成瀬美悠子 (2008). “オートボイエティック・システムとしての生態系.” 『社会·経済システム学会第27回大会発表集』. 情報社会学会.
- 佐々原正樹 (2014). “「読み」の語り直しと「言論の場」.” 『広島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第63集, pp. 87-96.
- 川田牧人 (2005). “<社会調査の社会学>目で見る方法序説: 視覚の方法化もしくは考現学と民俗学.” 『先端社会研究』. 第2号, pp. 73-94.
- 鷺田清一 (1999). 『「聴く」ことの力』. 東京: TBSブリタニカ.

| 논문투고일 : 2016년 11월 08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11월 18일 |

| 게재확정일 : 2016년 12월 05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4 (2016)

Narrative of Duplicity and History of Political Memory

Zheng yi

(East Asia Research Center, BeiHua and HeiHe University)

Jun SungKon

(East Asia Research Center, BeiHua University)

In the Japanese earthquake this argument through narrative analysis of the Parties to the disaster experience. And then how to presents what is associated with pre-disaster recovery development of the dictionary. To this end, the first chapter in history and reviewed the relevance of the narrative. Especially individuals who can not fall of experience in the flow of history and review historical revisionism methodology that mean to the excitement about memory. It was a memory for ham to the 'process' of representation Post-narrative voice' the history of the problem. Indicate this is conscious of hot new and memories of past experiences in the narrative in chapter 4 cover 'substance' offered logic that must free ourselves from memory. It was a national standpoint, and institutional sharing of historical 'awareness of transplant' that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deploying. Is a disaster memory of awareness by 'human tolerance' that was made by narrative.

- Key words: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Historicize, Memory, Narrative, Folktales